코로나19가 가져온 여행·레저산업의 '뉴 노멀' 트렌드

"서울 관광명소,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서울관광재단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출입통제된 석촌호수 등 전세계 소개**

**호텔 레스토랑 '드라이브 스루' 도입
해외 대신 장기간 국내여행 상품 등장**

'라이브 스트리밍 관광, 프라이빗 룸콕 호캉스, 청결 테마 패키지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 노멀'(New No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 트렌드는 여행·레저업계도 마찬가지다.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 항공여행산업의 글로벌 침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이 여행·레저 산업에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레저 업계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을 뜻하는 뉴 노멀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의 풍경을 틱톡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하는 'SEOUL NOW'의 광화문(왼쪽)과 한강 모습.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관광을 … #SEOUL NOW

서울관광재단은 글로벌 SNS인 틱톡(TikTok)과 손잡고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하는 'SEOUL NOW'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서울을 방문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라도 명소들을 소개하자는 아이디어다.

14일부터 18일까지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대표 명소 5곳을 소개하고, 이후에는 참여형 챌린지로 서울의 현재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관광재단 틱톡 계정(@visitseoul)을 통해 진행하는 '#SEOUL NOW'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석촌호수,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로 유명해진 녹사평 육교에서 바라본 남산, 응봉산에서 바라본 한강, 경복궁의 낮과 밤 등이 라이브 영상으로 세계에 소개된다.

이어지는 '지금 너의 서울을 보여줘 #SEOULNOW' 챌린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해시태그 #SEOULNOW #StayStrongSeoul 과 함께 틱톡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장은 "캠페인과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는 작은 위로가, 침체된 관광업계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면접촉 피해라" 언택트 서비스 급부상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서비스'는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산업으로 불리던 호텔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호텔 레스토랑 음식을 미리 주문해 로비에서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를 앞다투어 도입하는가 하면, 내수시장의 주력 상품인 호캉스 패키지에 언택트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경주 코오롱호텔이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언택트 안심 객실 패키지'는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번잡한 로비 카운터 대신 프라이빗 체크인과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서비스를 도입했다. 객실은 인접하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안심 객실 배정'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식도 신청을 하면 객실서 식사하는 인 룸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대신 국내"…장기 '룸콕' 패키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당분간 해외여행은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돌아서면서 장기간 국내를 여행하는 트렌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우나오션리조트가 5월31일까지 진행하는 '프라이빗 베케이션' 프로모션은 최대 30박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도심에서 떨어지고 산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입지를 살려 한적한 곳에서 장기간 호캉스를 즐기도록 구성한 상품이다. 도시락을 객실까지 가져다주는 인 룸 다이닝 서비스와 객실 넷플릭스 지원 등 '장기 프라이빗 룸콕 호캉스'에 최적화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거붕그룹 백용기 회장 가족, 크로아티아에 지진복구 성금 3000만원 전달

거제도 거붕백병원을 운영하는 거붕그룹 백용기 회장이 지난달 22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크로아티아에 지진 복구를 위한 가족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백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부인 구미숙 여사와 함께 14일 다미르쿠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를 방문해 "한국인이 많이 찾는 크로아티아에서 140년만의 강진으로 자그레브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파괴돼 가슴 아프다"며 "하루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양국이 서로 도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센 대사는 "백 회장 가족이 크로아티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 큰 감동을 받았고 크로아티아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산토리니'가 떴다…빙그레, 1천억 탄산수 시장 진출

**플레인·라임·자몽 등 4종 출시
목 넘김 부드럽고 뒷맛 깔끔해**

빙그레가 자사 첫 탄산수 제품인 '산토리니'(사진)를 출시했다. 빙그레는 탄산수의 깨끗하고 시원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에게해에 위치한 그리스령의 섬인 산토리니를 제품명으로 정했다.

산토리니는 플레인, 라임, 레몬, 자몽의 4종으로 출시됐으며 강한 탄산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한 탄산의 짜릿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입 안 가득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깔끔한 뒷맛을 구현해 목 넘김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과일향을 첨가한 제품의 경우 지중해 과일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어 더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빙그레는 탄산수 시장이 현재 1000억 원 규모이며, 꾸준히 성장세에 있는 점에 주목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6일(목) 음력: 3월 24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하라. 기반을 닦아 가급적 폭력은 멀리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오늘은 반안살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진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파도, 좌충우돌.

운세가 좋은 때이니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느낌이 호감이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모든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사건이 일어나기 쉽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화개와 화개의 만남이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나 정신적으로는 활발하다.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관련 일들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게 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전환기이며 혼돈의 시기이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상태를 의미한다.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비바람, 힘들다.

상문일이다.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마음을 비운 상태라 하지만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된다.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월살일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오늘은 주위환경의 변화로 영업상의 소득이 있다.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차츰 운이 좋아지는 시기지만 매사에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숙고한 후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기운이라 시기를 보는 눈이 예리해야 한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는 뜻도 된다.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노을, 인생무상.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요,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맑음, 권태롭다.

희망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성취되겠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해외나 장거리여행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멍 때리다가 손재수를 당할 수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천살일이며 말띠에게는 식신이다. 천살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 까지는 기다려라.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월살일이며 양띠에게는 비견이다. 재물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날이다. 오늘은 집수리나 이사도 안 되고 혼인 등 좋은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싸늘, 외롭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다면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진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화개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요,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혼란.

나의 운기가 쇠해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잠시 물러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만족.

얻은 소득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감사하라. 오늘의 소득은 내 노력이 아닌 주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다. 오늘 입사시험을 본다면 합격이지만 주변인이 포기해 추가합격한 것이다. 오늘은 월살일이다. 월살이란 모든 일의 침체, 좌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고초살이라 하여 무모함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날씨와 생활

16일(목)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서울	0/10	10	25
인천	0/10	9	21
수원	0/10	6	24
춘천	0/0	6	24
강릉	30/20	9	15
청주	0/10	8	24
대전	0/20	7	25
전주	0/20	6	25
광주	0/20	7	23
대구	20/10	8	21
울산	20/20	10	17
부산	20/0	10	18
창원	20/0	8	19
제주	0/20	11	21

해뜸 05:56 해짐 19:08 달뜸 02:40 달짐 12:40

산 날씨

북한산	6/25	내장산	5/23
설악산	7/14	무등산	3/23
오대산	6/24	주왕산	4/19
속리산	4/23	지리산	6/20
계룡산	4/25	한라산	11/18

바다 날씨

인천송도	9/21	안면도 꽃지	3/23
제부도	6/24	변산반도	4/23
경포대	9/15	거문도	4/18
속초	7/14	해운대	10/18
대천	5/24	제주도	11/21

미세먼지

서울	40	보통	대전	28	좋음
부산	22	좋음	울산	19	좋음
대구	26	좋음	경기	42	보통
인천	39	보통	경북	24	좋음
광주	26	좋음	제주	13	좋음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7일(금)	서울경기	11/16	영동	10/16	충청	10/18
	호남	11/18	영남	12/16	제주	15/20
18일(토)	서울경기	9/19	영동	9/13	충청	10/20
	호남	9/20	영남	12/20	제주	13/16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유료부수 2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361-1610

발행인	이인철	편집부장	안도영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부장	정재우
편집국장	연제호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광고국장	이승욱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인쇄	동아일보사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361-1616 sol@donga.com